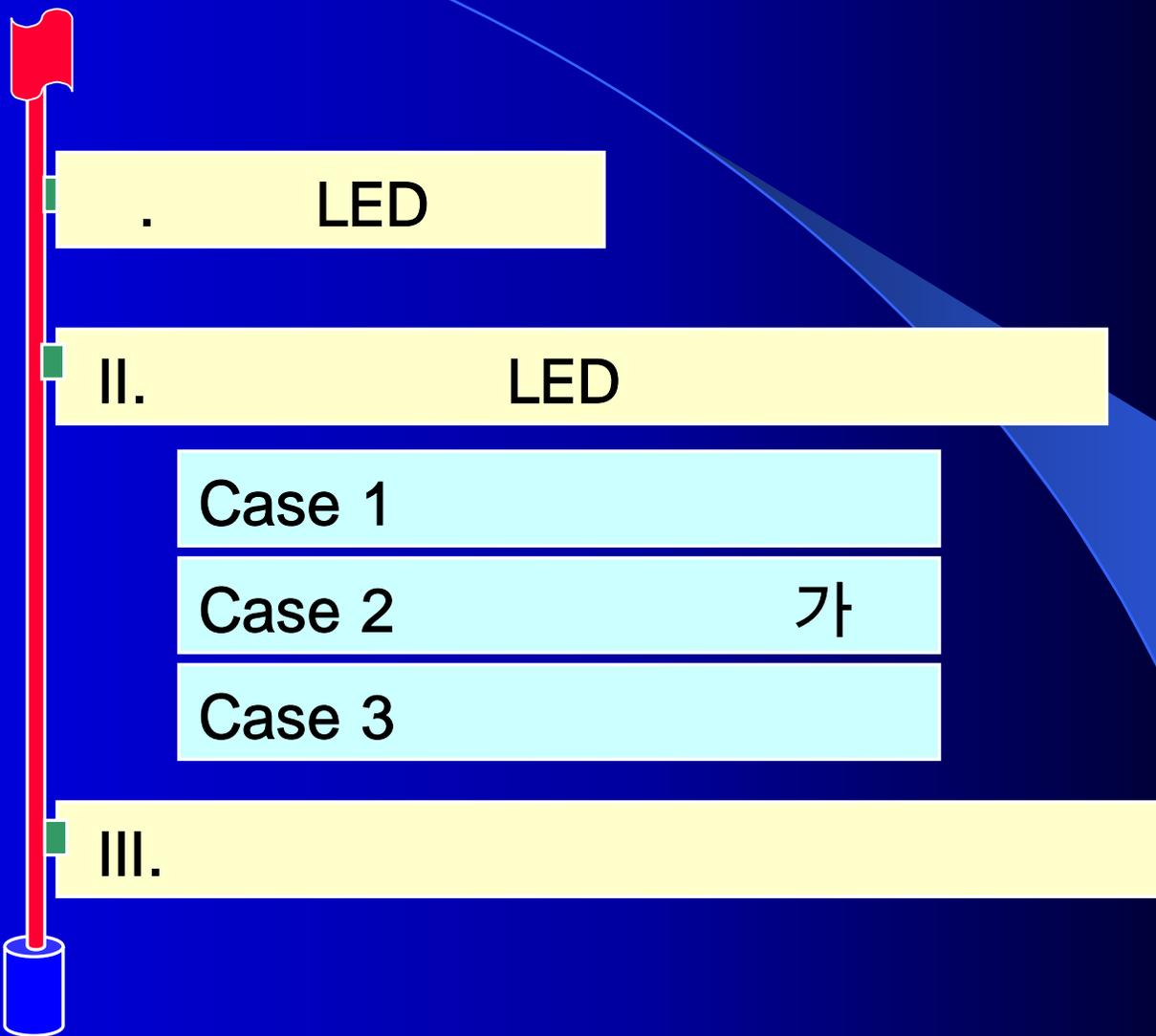


LED

2005. 10. 21.



I. LED

LED

Camera Flash White LED

LCD Backlight(White LED)



Keypad backlight
(Blue, 3-chip - 7-color)

2'nd LCD backlight



LED Backlight Unit

Other New Products & Concepts Shown in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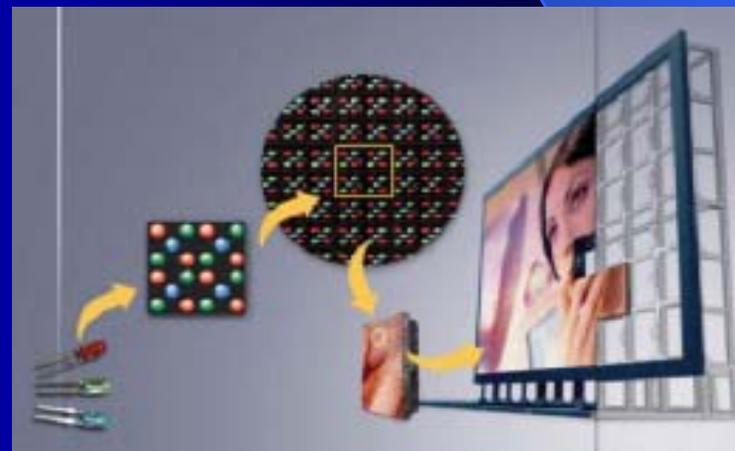
- Alfa Romeo
 - 166 (Turn 30 LEDs)
- Maserati
 - 3200T (Turn 48 LEDs)
- Hyundai
 - Equus (Front Turn 52 LEDs)
- Lancia Thesis
 - RCL (42 LEDs)



LED 보행신호등



LED 차량신호등



LED



WORLD AFFAIRS 제 488호 2001.7.19

세계 정상급 인재들 일본을 빠져나간다

빈사상태의 경제, 보수적 분위기에 영중 예술가 과학자들 떠나면서 국가의 뿌리 흔들

Gregory Beals, Kay Itoi 도쿄 지국 기자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 49)는 청년머로 10여년 전에 떠났던 고국의 거리를 동시한다. 정발에 청바지 차림의 그는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거리의 4층에 위치한 에 조용하고 우아한 찾침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관박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인 남자 손님들과 진주 액세서리로 치장한 여자 손님들은 이 침입자를 최대한 무시하려 애쓴다.

그들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물리본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수백만 음악애호가들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음악 작곡가로 손꼽히는 사카모토를 숭배한다. 20년 전 그는 3인조 테크노팝 그룹 '킬로 데릭 오케스트라'로 스타덤에 올랐다. 1987년 그는 데이비드 번과 '마지막 황제'(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음악을 공동작곡해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사카모토는 모국에서 신처럼 숭상되지만 1990년 이래 살고 있는 곳은 미국 뉴욕이다. 그는 카푸치노를 한모금 마시고는 인가에 갇힌 거리로 시선을 되돌리며 중얼거린다. "나는 결코 여기서 살 수 없다. 이 사회는 나 같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 보수적이다."

자긍심은 돈만큼이나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시미즈 나오코(清水直子 32)는 올해 초 베를린 뮐하모닉에서 비올라 제1 주자로 데뷔했다. 그녀는 아직도 행복감에 젖어 있다. 베를린 뮐하모닉은 도쿄나 고향인 오사카(大阪)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만족감을 준다는 게 그녀의 얘기다. "베를린에서 음악가의 위상은 도쿄에서보다 높다. 의사나 변호사처럼 존경받는 직업이다. 평생 여기서 살고 싶다."

이와 달리 고향스럽게 떠나는 이민자들도 있다.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는 중흥성 없는 기업 문화 때문에 고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

그는 어릴 적 인기 만화 '우주소년 어룡'의 영향으로 로봇 기술자가 되고 싶었다고 말한다. 성장 후 그는 1979년 니치아(日亞化學工業)社에 발명가로 입사했다. 20년 후 그는 DVD 및 다른 전자 장비들의 핵심 부품인 '푸른 빛'(青光) 레이저 장치 개발에 일조했다. 니치아는 이 신기술을 파이오니어社에 임대했다. 그러나 20여년의 종사에 대한 대가로 회사는 그가 1990년대에 떠난 5백가의 특허에 각 1백달러씩의 보너스를 지급했을 뿐이다. "응답도 없었다. 회사는 나를 무시했다. 일본 기업들은 공산주의 사회를 꿈꿨다"고 그는 뉴스위크에 말했다. 지난해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타바버라 캠퍼스에 연구원으로 취직했다. "미국에서는 내 업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II. LED

-
-

1999. 12.

,

2000

,

2000. 5.

Cree

2000. 9.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2000. 12.

,

2

2001. 8.

,

2002. 9.

2004. 1.

가

2005. 1.



LED

- 特許權 民事訴訟事件
東京地裁 平成13(ワ)17772

- CASE 1 ,
- CASE 2 가
- CASE 3

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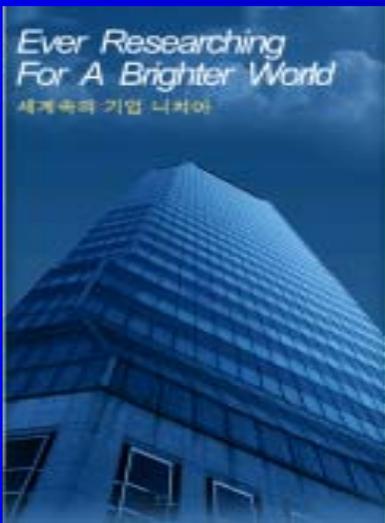
CASE 1

2002. 9. 19.

- - 2628404 1/1000
 - (1)

- - 2628404 “ ”
 -

II. 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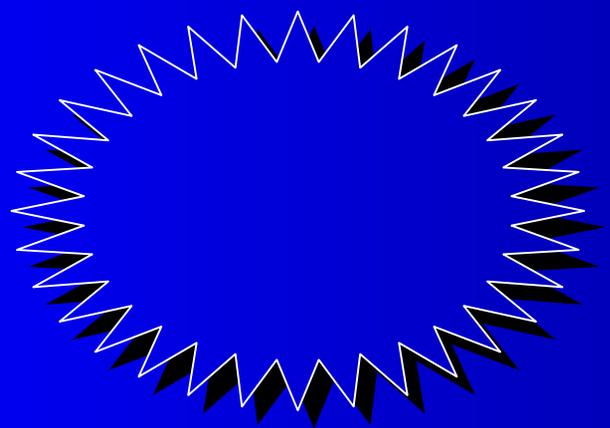
LED



“ ”



LED



II. LED

(1)

- 1. ,
- 2. ,
- 3. ,
- 4.

→

●

→

→

가

가

“ ”

II. LED

(2)

1. 1985 17 []

2.

3.

4. 35 가



LED

CASE 2

2004. 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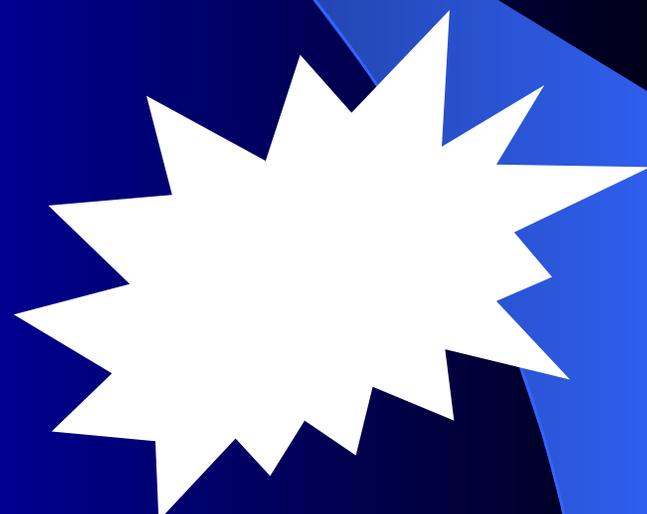
가 200



1.

가

2.



II. LED

가

●

→

(35 1)

→

가

(35 4)

가

→

II. LED

가



가

●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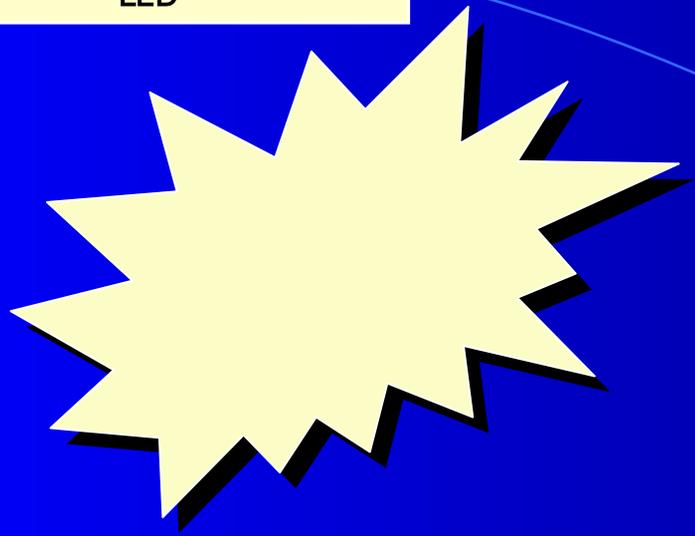
→

X

● 가 ()

→

II. LED



=

X

X

=

+

= LED

+ LD(Laser Diode)

-	6	14	LED	2398	5100
-					
	2010				
		1	1054	3540	
			1031	6587	
-			1	2086	0127

II. LED

Case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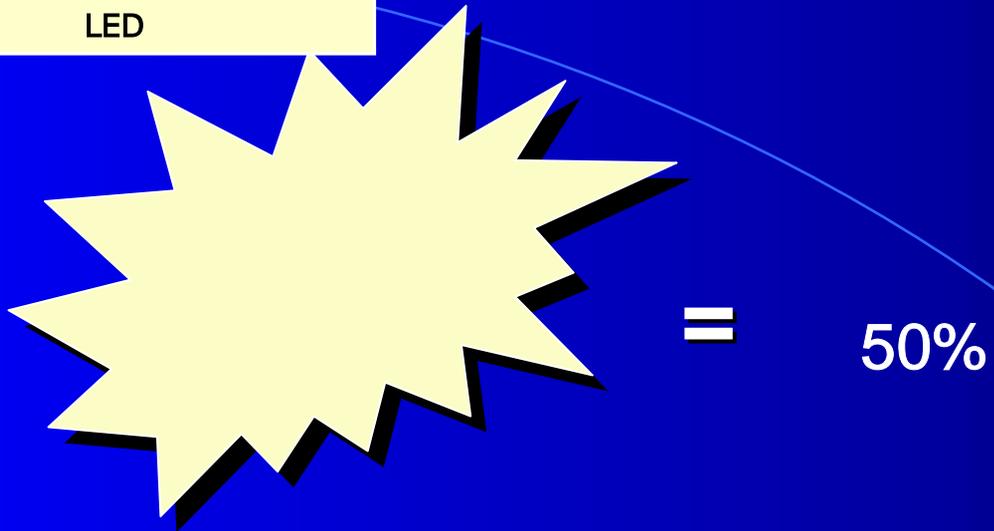
2

1

=

20%

II. LED



가

V

(MOCVD)

II. LED

(가)

- 가 = : (1 2086 0127) X
50 % X
20 %
: 50 %

- 가 604 3006

법원, 발명대가 2200억원 지급 판결

日기업 “직원 특허보상 큰일났네”

유사소송 잇따름

일본 법정이 직무상 개발한 발명 특허 대가를 물려싼 회사와 직원간 소송에서 사원권을 물려주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도쿄지방법원은 90일 정식 발판 다이오드(LED)의 개발주역인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타바버라 분교 교수가 자신이 근무했던 니치아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특허소송에서 회사측은 특허대가로 2백억원(약 2천2백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도쿄고등법원은 니타키제직소의 전직 연구원 요네자와 세이지씨에 대해 회사측이 1억6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차례 판결은 일본 산업계 전체를 경악시켰다. 지급명령 액수가 직무상 발명의 대가와 관련해 벌어진 소송 중 사상 최고인데다 니타키의 경우 1심 판결 때(3천4백만엔)보다 지급액수가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언론과 산업계는 그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케논 올림푸스광학 등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유사한

소송에 휘말려 있어 직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속출할 경우 직무발명의 대가를 거의 인정하지 않던 과거 관행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일본 특허법 제55조는 기업이 발명의 주역인 직원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특허를 넘겨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대가는 기업마다 천차만별이다. 요네자와 씨측의 마쓰나가 히데오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누려온 일본사회에서 법원이 개인의 입장을 확실히 인정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쿄·양승택 특파원
yangsd@hankyung.com

CASE 2

1.

-
-

()

2.

-

3.

[특허법 제35조 제4항]

계약, 근무 규칙 그 외의 정함에 있어서 전항의 대가를 정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책정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과의 사이에 행해지는 협의의 상황, 책정된 해당 기준의 개시 상황, 대가 액의 산정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 정한 바에 의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해서는 안된다.

[특허법 제35조 제5항]

전항의 대가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정한 바에 의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대가액은 그 발명에 의해 사용자등이 받아야 할 이익액, 그 발명에 관련해 사용자등이 행할 부담, 공헌 및 종업원 등의 처우 그외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II. LED

4.

가.

- 2004. 4.

-

18

-

·

- 100 , 40 ,

- 가

II. LED

LED

CASE 3

2005. 1. 11.

- 東京高等裁判所 平成16年(ネ) 962 ,
同 2177 和解

←

●

→ 6 857 1271

II. LED

가



:

1 (1994-2002) : 2019 7316

2 (2003)

2019 7316 / 9 X 9 X (0.7)

50 %

20 %



: 5 %



가 : 6 857

가
()

구 분	발생 시기	주요 내용	청구액	판결 내용
일본	올림푸스 광학공업	'95 CD 등에 사용되는 판독장치의 소형화와 관련 특허에 대해 보상 요구	5,229만엔	250만원 (상고중)
	히타치 제작소	'97 CD 판독기구 등 광관련 특허기술에 대해 실적보상 요구	약 9억5천만엔	원고일부승소 약1억3천만엔
	日産 화학 공업	'01 '93년에 개발한 청색발광다이오드에 대해 발명자인 나카무라 교수가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200억엔	원고승소
	아지 노모토	'02 인공 감미료 「아스파르탐」을 대량 제조하는 특허를 보유한 직원이 보상을 청구	20억엔	원고일부 승소 1억8935만엔 지급을 명령
	히타치 제작소	'03 「질소자석」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직원이 보상을 청구	약 20억엔	원고일부승소 1265만엔
	캐논	'03 레이저 프린터 특허에 대한 보상 요구	10억엔	계류중
	미쯔비시 전기	'03 플래시 메모리 특허에 대한 보상 요구	2억	계류중

제소 년도	당사자(피고)	청구액	상당대가액(법원)	비고
평성16	도시바(東芝)	10억엔		-
*	デンソー	10억엔		-
*	샤프	5억엔		-
*	화이자(Pfizer)제약	10억엔		-

III.

1.

-

-

2.

-

-

-

(相生)

